

Seamus Heaney 詩에 나타난 전통

洪 誠 淑

I. 서 론

세무스 히니 (Seamus Heaney) 시의 가장 큰 특색은父에 대한 추구라고 할 수 있다. 그의 첫 시집 『자연주의자의 죽음』에서 1996년 출판된 『영혼의 측정』까지에 등장하는 친부에 대한 묘사 속에 보여지는 父에 대한 애착과 그리움은 단순히 육신의 父가 아닌 정신적 지주를 의미하며 이것은 나아가 전통을 의미한다. 히니의 전통 추구는 현재 속에 살아있는 역사의 교훈을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것을 넘어서는 것으로서 영국의 품앗 노동자로 전락되어 버린 자신들의 고향을 메꾸려는 적극적인 동기에 의한 것이다. 즉 오랜 식민의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렸거나 혼미해진 민족 정체성을 되살리려는 민족주의와 관련이 깊다.

손 루시(Sean Lucy)나 다니엘 코커리(Daniel Corkery) 등은 아일랜드 문학학을 아일랜드인의 경험을 보다 아일랜드화된 영어로 그린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히니만큼 이 정의를 만족시킨 작가는 드물다.

다시 말하면 그의 작품 속에는 아일랜드 문예부흥 이래 현재까지 면면히 나타나는 민족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전통 추구가 강하게 깔려있다. 다니엘 코커리 같은 이는 대지에 대한 애착, 카톨릭으로의 감수성, 언어에 대한 애착이 아일랜드 민족 문학의 소재임을 지적했는데 히니 시 속에는 이런 현

상이 잘 반영되어 있다. 민족의 정체성 추구는 'center', 'omphalos', '전통', '父'라는 말로 표현하는데 히니에게 있어 'omphalos'란 헬레니즘을 의미한 조이스와 달리 자신이 속한 향토를 의미한다.

그리고 히니 시의 또다른 특성은 현대 아일랜드 문학 유산을 계승한다는 점에 있다. 히니 문학은 예이츠, 조이스, 카바나흐, 몬타그 등의 문학 전통을 잇고 있는데, 이들 문학 전통의 핵심 개념 역시 민족 정체성의 수립인 것이다. 문예 부흥 이후 오늘날에 이르는 현대 아일랜드 문학은 자신들의 고유한 색깔을 기억하고 창조하려는 몸부림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을 조금 상세히 살펴보면 히니 시에는 예이츠의 민족 신화 만들기, 카톨릭 주체 세력의 눈으로 'here', 'now'를 그림으로써 민족의 새로운 양심을 만들려는 조이스적 정신도 있고 특히 전통시골의 향토색을 반영한 점은 카바나흐의 "parochialism is universal(향토색은 보편적인 것이다)"의 정신을 이어받은 것이다. 이밖에도 몬타그의 국제 지향, 얼스터 시인들의 개인적 경향 역시 함축되어 있다.

그런데 아일랜드 문학에 나타난 정체성의 방향은 문예 부흥기에 있어선 고대 켈트족의 영웅 신화에서 아일랜드인들의 우수함을 찾는 일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이같은 추구가 예이츠같은 신교 특권 계층의 감성에서 나온 낭만적 허구일 뿐 대다수 아일랜드인들의 카톨릭적 감성이 반영되어 있지 않음을 다니엘 코커리 같은 이는 지적하였다. 따라서 1939년 예이츠 사후의 아일랜드 문인들은 조이스식의 공격적인 사실주의 전통을 따르게 된다. 조이스는 문예 부흥기 작가들의 작품을 '하인의 깨어진 거울(the cracked looking glass of a servant)'로 비유하면서 아일랜드적 경험을 진솔하게 표현하지 못했음을 공격하였다. 조이스, 킨셀라(Kinsella), 클라크(Clarke) 등은 자신들의 전통이 단절되어 버렸음을 의식하면서 카톨릭 제일의 전통을 반영한 아일랜드 모더니즘을 확립한다. 그러나 이같은 과정에서 얻은 것은 식민의 혼미함에 대한 인식과 커다란 상실감 뿐이었다. 1950년 이래로 아일랜드 문학계의 주 조류는 미국 모델을 받아들인 국제화, 영국의 형식주의 답습, 그리고 얼스터 사태후에는 전시대의 민족주의가 부활되고 있다. 그러나 최

근에 와서는 보다큰 유럽 국가로서 종파의 갈등이 해소될 수 있는 새로운 전통을 염원한다. ‘Tara’가 아일랜드인의 정치 중심이라면 오늘날의 아일랜드는 이같은 갈등이 풀리는 새로운 전통, 즉 예언가의 눈을 가진 시인만이 찾아낼 수 있는 ‘uisneach’¹⁾를 추구한다.

히니는 민족의 정체성을 추구한 현대 아일랜드 문학 전통을 계승하는데 그 방향은 아일랜드 현대 역사 속에서의 정체성 추구의 방향과 일치된다. 즉 처음에는 향토 문화 속에서 자신의 뿌리를 찾다가 점차 통합 아일랜드적인 전통을 추구한다. 얼스터의 구교 작가로서 민족주의인 게일릭 공화노선(Gaelic Republic)을 추구하다가 앵글로 아이리쉬(Anglo-Irish)까지를 포함하는 통합된 관용의 유럽국가로서 지역성과 국제화가 조화된 전통을 지향하고 있다.

본론에서는 히니가 추구하는 전통을 좀더 구체화시켜 고찰해 보겠다.

II. 본 론

A. 켈트적 정체성 추구의 전통과 히니의 시

빅토리아 시대 문인 매튜 아놀드(Mathew Arnold)는 영국과 아일랜드의 차이를 나타내기 위한 말로 켈트란 말을 사용한다. 그런데 ‘켈트’란 말 속에는 ‘문명’의 상대어인 ‘원시’란 어감이 들어 있다. 빅토리아 영국 부르조아의 속물 의식과 아일랜드 신교 특권층을 공격하기 위해 쓰여진 이 말은 켈트족의 장점을 부각시킨다. 그리고 예이츠 등의 문예부흥기 작가에 의해 아일랜드 민족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말로 정착되며 낭만적, 영웅적 색채가 가미된다. 그리고 19세기 아일랜드 문예부흥과 독립 아일랜드는 대다수 카톨릭 켈트를 주체로 한 켈트 색채로 민족주의 노선을 강화시킨다. 이 과정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800년 영국과의 합병으로 켈트 색채가 짙은 아일랜드 문학이 쇠퇴했다.

1. 이 말은 모든 갈등이 풀리는 신비한 중심을 의미한다.

그러나 1848년 대기근과 신페인당이 승리한 1918년 사이 켈트 색채로의 민족 문화 부흥운동이 일어난다. 그 선봉자인 오그라디(O'Grady)는 『아일랜드 역사 *History of Ireland*』를 집필했고 1892년 만들어진 아일랜드 문인 협회(Irish Literary Society)는 ‘살아있는 아일랜드 문학을 만들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예이츠(W.B. Yeats), 그레고리 부인(Lady Gregory), 조지 무어(George Moore), 더글라스 하이드(Douglas Hyde) 등은 시골문화 속에 남아있는 신화, 민요, 민담에서 켈트 색채를 찾으려 했다. 1893년 결성된 게일어 협회는 잃어버린 게일어를 회복시키려 한다. 그런데 켈트 색채로 정체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문제로 부각된 것은 아일랜드식 영어를 만드는 문제였고 또다른 하나는 상실된 국토를 찾는 문제였다. 19세기 후반 마이클 데이빗(Michael Davitt)에 의해 결성된 토지협회는 토지소유권에 대해 기존의 지주 대신 농민의 권리를 인정했고 이것은 문학에 있어 향토색 짙은 작품을 그리는 현상을 낳는다. 패트릭 카바나흐의 “향토색은 보편적이다(Parochialism is universal)”라는 믿음과 조이스의 발언 “세계 작가가 되려면 우선 자신의 것을 그려야 한다”는 데서도 반영되고 있다. 이런 믿음은 히니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교구를 시 소재로 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했고 시골 문화로부터 출발한 히니는 예이츠 이후 현대 아일랜드 문인에게 일관된 민족 정체성을 세우려는 전통, 그것도 켈트적 색채로써 정체성을 세우려 한 전통을 수용했다. 또한 1948년 영국에서 독립한 아일랜드 공화국도 민족에 있어 켈트 언어는 게일어, 종교는 카톨릭, 정치는 공화국을 지향함으로써 켈트 문화로서 민족 정체성을 추구하는 것을 이상으로 삼았다.

그리고 정체성 추구는 또한 앵글로 아이리쉬 문학의 정의내리기에 있어서도 보여진다. 영국편에서는 “영국 토착민도 아니고 아일랜드 토착민도 아닌 16·17세기 아일랜드 땅을 점령한 잉글랜드나 스코틀랜드에서 건너간 신교 특권계층(Protestant Ascendancy)의 문학”으로 정의내린다. 이에 반해 아일랜드편에서는 “아일랜드인에 의해 쓰여진 영어로 된 작품”이란 다니엘 코커리의 정의를 수용한다. 그러나 코커리의 정의를 적용하면 상류 영국사회를 작품 소재로 다루는 버나드 쇼우(G.B. Shaw)나 오스카 와일드(O. Wilde)의 것이 포함되게 되므로 보이드(Boyd)는 민족정신이 다소나마 전해

지는 문학으로 그 정의를 바꾼다. 그런데 이때 문제는 민족정신(the spirit of the race)의 범주가 너무 넓고 모호하며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손 루시는 앵글로 아이리쉬 문학의 정의를 다소 자세하게 내리고 있다. 즉 “한편으로는 영국, 아일랜드의 두 가지 전통과 문화 그리고 두 언어 사이의 복잡하고도 발전하는 관계를 다룬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추구의 이야기인데 즉 그것은 영어를 사용하는 아일랜드인들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탐구의 일부로 아일랜드적 경험을 표현하기 위해 영어를 다른 형태로 변형시키는 것이다.”라고 정의 내리고 있다.²⁾

17세기에서 20세기까지의 아일랜드 작가들은 영어로 글을 쓰면서 어떤 이는 순수하게 아일랜드 전통을, 또 어떤 이는 영국 전통이 섞인 작품을 써왔다. 하나는 ‘존 알폰수스 멀레난의 재미나는 경우’(*The Interesting Case of John Alphonsus Mulrennan*)라는 강좌에서 예이츠 중심의 신교적이고 귀족적인 색채를 띤 영국과 아일랜드라는 두 개의 문명을 추구하는 전통과, 카톨릭 게일어 사용의 민속 전통 추구라는 두 가지 조류가 있음을 언급했다.³⁾ 여기서 필자가 말하는 켈트적 정체성 추구는 후자의 전통과 더 관계된다.

이같은 정체성 추구는 문학에 있어서는 그들의 독특한 감성과 소재로 표현된다. 아일랜드인의 감성은 영국인과 달리 문명 이전의 원시상태와 관계된다. 이런 감성을 필자는 ‘신화적 감성’이라고 불렀다. 왜냐하면 아일랜드인의 원래 감성은 문명 이전 신화시대의 감성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즉, 신,

2. Sean Lucy, *Irish Poets in English* (Cork and Dublin: The Mercier Press, 1973), p. 15. “The story of Anglo-Irish poetry is the story on the one hand of a complex and developing relationship between two traditions, two cultures, two languages, and on the other it is the story of a search: it is part of the quest of the English-speaking Irish for an identity, the reshaping of English to express the Irish experience.”

3. Seamus Heaney, “The Interesting Case of John Alphonsus Mulrennan,” *Planet* 41 (January 1978), pp. 34-40. “On the one hand there is the Protestant patrician version centred on Yeats, which sought to found in Ireland a kind of counter-culture, an alternative society, on the other hand ‘the Catholic, Gaelic hinterland’ stands by a pious folk tradition.

인간, 자연은 수평적 체계로 인식되어 경계선 없이 변신이 자유롭다. 이들은 삶을 일회적으로 보지 않고 순환하는 것으로 인식하며 성(性)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자연과의 교감이 강한 감성이다.

아일랜드 문학의 소재는 상실된 국토와 언어에 대한 염원, 신화, 요정 등의 이야기가 많고 이런 것이 영국 문학과 다른 점이다. 또한 그들의 정체성 표현은 중심(omphalos) 추구에서도 보여진다. omphalos⁴⁾는 켈트인의 방패위 장식돌기를 의미하므로 이것에 대한 애착은 정체성 확립과 아울러 영국의 공격에 대한 아일랜드의 방어정신을 의미한다. 히니는 그의 책 『몰두 Preoccupations』에서 “‘omphalos’란 음은 물이 떨어지는 느낌을 주는데 이 음을 반복하면 펌프질을 하는 동양인의 노랫가락이 연상된다.”라고 언급했다.⁵⁾ 따라서 히니에게 ‘omphalos’는 그가 속한 고향인 것이다. 이렇게 아일랜드 문인들은 국토에 대한 애착을 강하게 나타낸다. 딜론 존스톤은 그의 책 『조이스 이후의 아일랜드 시 Irish Poetry After Joyce』에서 아일랜드 문학 전통 중 일관된 것은 국토에 대한 묘사로서 고대문학에서는 지명의 이름과 전설로 지명을 의인화시킨 전통이 있었는데 이것을 일명 ‘dinnseanchas’라 언급했다. 히니의 「아나호리쉬 Anahorish」는 바로 이같은 전통에 따라 쓰여진 시다. ‘아나호리쉬’는 ‘물 맑은 곳’이란 뜻을 지닌 아일랜드어 ‘Anach fhiur uisce’에서 유래된 단어로 히니는 ‘아나호리쉬’라는 지명의 모음에 아직도 자신들의 아일랜드어 음가가 남아있음을 밝혀내면서 「아나호리쉬」란 시를 통해 국토의 아름다운 모습과 그곳의 거주민들의 강한 생존력을 묘사하고 있다.

4. womb과 phallus의 어원을 지닌 이 말은 아일랜드 문학작품에 자주 등장, 중심에 대한 아일랜드의 믿음을 의미하며 Alwyn과 Brimley Ree는 *Celtic Heritage*에서 이 중심 회복의 사고는 아일랜드 민족주의 정신을 의미한다고 언급했다.
5. Seamus Heaney, *Preoccupations* (London : Faber and Faber, 1980), p. 17.

“I would begin with the Greek word, omphalos, meaning the navel, and hence the stone that marked the centre of the world, and repeat it, omphalos, omphalos, omphalos, until its brunt and falling music becomes the music of somebody pumping water at the pump outside our back door.”

이밖에 켈트 문학의 많은 부분은 기독교 이전 이교색채와 관련된다. 땅, 우물, 나무, 돌, 불 등의 숭배 및 의인화, 주술 등의 전통이 그것이다. 이런 요인은 히니 시 「물의 요정 Undine」, 일련의 늪에 대한 시, 「수맥점장이 Diviner」 등 다량의 시에서 표출된다.

고대 켈트족은 어둠을 숭배했다. 그들은 어둠을 우물과 늪속에 숨어있는 것으로 인식했고 삶의 강력한 에너지와 신비의 모체로 여겼다. 그들의 어둠 숭배정신은 대지밀의 세계에 대한 강한 믿음에서도 확인된다. 고요하고 깊고 어두운 아일랜드 늪은 켈트정신이 스며나오는 곳이다. 히니의 두 번째 시집 『어둠에로의 문 Door into the Dark』에는 여러 종류의 어둠이 표현된다. 『대장간 The Forge』에서는 창조의 신비가 이루어지는 모체로서의 어둠이 있고 『반도 The Peninsula』 및 『늪지대 Bog Land』의 어둠은 회색 잿빛 아래 검은 토양 즉, 아일랜드 국토에서 느껴지는 어둠이다.

켈트인들은 구체성과 추상성에 대한 구분이 없이 둘 사이를 왕복하는 특성을 지닌다. 이같은 경향은 히니의 시 『환영을 찾아서 Seeing Things』에서 구체에서 추상으로 옮겨가는 언어의 자유로운 변신으로써 입증되며 히니의 대부분의 시는 구체적 소재와 글쓰기라는 추상적 개념이 융해된 작품이다.

이밖에도 여성적 감수성을 나타내는 것 역시 아일랜드 문학의 특색이다. 이것은 아마도 그들이 성모 마리아를 섬기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842년 “The Nation”이란 신문에서 아일랜드를 여성으로 그린 전통이 마련되는데 히니의 늪지대를 그린 시에서 땅을 인신희생양을 제물로 받는 여신으로 그린 것 역시 이 전통을 따른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아일랜드 전통 문인은 ‘fili’, ‘bard’, ‘senchai’ 등으로 불렸고 예언자 정치 대변인의 역할을 담당했다. 이 점 때문에 문학, 정치, 종교의 관계가 다른 나라보다 밀착되어 있다. 히니의 시 「수맥점장이 Diviner」, 「대장간 The Forge」에서 시인은 주술가, 성직자, 예언가로 표현되어 있고 히니가 겪는 갈등은 공동체의 대변인으로서의 전통적 역할을 해야하는가 예술가로서 개인의 자유를 추구할 것이냐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리고 아일랜드 문인들은 상실된 언어에 대한 고통과 재생에 대한 염원에 있어 다른 나라 작가들보다 진지하다. 이들은 일부 지명에 남아있는 고

유음가를 보전하려는 노력과 영어를 자신들의 감각에 맞게 변형시키려는 노력으로 이같은 상실감을 극복하려 했다. 이같은 면은 히니 시가 영어에 흔히 이용되는 동사대신 명사, 타동사대신 자동사 구문을 주로 쓴 것, 홍수가 난 물소리에서조차 자신들의 독특한 음가인 후음을 발견하려 한 노력을 통해 증명된다. 이밖에도 아일랜드 작가들에겐 상실된 국토를 회복하려는 염원이 강하다. 히니는 억압받는 북아일랜드 카톨릭 출신이므로 국토 회복에 대한 염원이 다른 작가보다 강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자신들이 겪고 있는 고통은 그의 세 번째 시집 『겨울나기 *Wintering Out*』에 잘 나타나는데 국토를 인신희생을 제물로 받고 그 대가로 풍요를 허락하는 여신으로 의인화시켜 상실을 극복하려 한다. 히니의 시집 『겨울나기』와 『북쪽 *North*』은 북아일랜드사태에 대한 생생한 기록인 동시에 작가의 반응이다. 그런데 이같은 북아일랜드 사태의 뿌리에 대해 어떤 이는 1969년 이후의 비교적 최근의 사건에 있다고 여기고 역사가들은 그 뿌리가 1800년의 ‘합병령(Act of Union)’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하며 때로는 보인 전투까지로 때로는 1916년 부활절 봉기에 있다고 말한다. 이에 대해 영국학자들은 북아일랜드 사태의 조짐은 아일랜드 부족시대에 있다고 주장, 부족의 내부 분열로 돌려 그 기원을 한층 아일랜드인 자체의 것으로 일축해 버리기까지 한다.

히니 시 특히 『자연주의자의 죽음 *Death of a Naturalist*』에서 『북쪽 *North*』까지 시들에서는 북아일랜드 땅의 억압받았던 카톨릭 소수파 시인으로서 켈트전통으로 자신을 표현하려한 경향이 강하게 표출된다. 땅파기, 어둠이라는 원형이미지 사용, 주술가, 전통 기교가로 시인을 인식한 점, 자연과의 교감을 성적(性的) 이미지로 묘사한 것은 모두 중심찾기, 식민이전의 전통으로 되돌아가려는 켈트적 정체성 추구의 전통과 관련된다고 평가된다.

B. 예이츠(W.B. Yeats), 조이스(J. Joyce), 카바나흐(P. Kavanagh)의

현대 아일랜드 문학 전통과 히니 시

히니는 민족의 낭만적 이상과 신화를 만들었던 예이츠, 영국적 가치에 저항하면서 민족의 새로운 양심을 창출하려 했던 조이스(J. Joyce), 자신의 국토에 대한 애착을 강하게 나타냈던 카바나흐의 영향을 복합적으로 받았다

고 평가된다. 현대 아일랜드 문학의 두 가지 전통인 예이츠식의 신화만들기의 낭만적 모더니즘과 조이스식의 탈신화만들기의 사실적 모더니즘의 두 가지 전통 모두 다 히니 시에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히니 자신 『몰두 *Preoccupations*』에서 밝힌 것처럼 시는 노고와 인내의 산물이어야 함을 강조한 예이츠는 중년에 다가가는 시인 히니에게 하나의 전형을 제공한다. 히니와 예이츠 둘다 토속적인 것에 대한 애착을 공유하고 있는데 예이츠의 이같은 정신은 히니처럼 중심(omphalos) 추구 정신에 입각한 것이기보다는 빅토리아 영국의 물질주의에 대한 반발로 보는 편이 좋다. 예이츠는 농촌과 신화를 그 소재로 하고 대지를 찬미했으나 그것 역시 막연한 것으로 그에게는 아일랜드 농민문화에 대한 정확한 인식조차 없었다. 반면 히니는 예이츠와 달리 소재, 이미지, 동기가 모두 사실적이며 전통적 뿌리가 강하다. 전통 문화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곳은 농촌이었고 아일랜드의 민족 종교는 카톨릭인 점을 고려할 때 예이츠보다 히니가 더욱 아일랜드 시골 문화의 전통을 대변하고 켈트적 단일문화로서의 정체성 추구가 강하다. 또한 히니가 예이츠로부터 물려받은 또 한가지는 민족 시인으로서의 사명과 국토를 민족문화의 유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정신을 전수받은 점이다. 늙지를 재생력이 강한 여성으로 그린 점은 예이츠가 아일랜드를 캐더린 니 훌리한(Cathleen Ni Hulihan)으로 의인화한 전통과 무관하지 않다.

예이츠가 1916년의 역사적 사건을 「부활절 봉기 *Easter Rising*」라는 시로 쓴 것처럼 히니 역시 「용병을 위한 진혼곡 *Requiem for the Croppies*」을 쓴 점도 둘다 민족시인이었음을 증명한다. 이밖에도 마지막으로 켈트 전통에 따라 'bard'로서 시인이 차지하는 정치적 위치를 인식한 점, 그러나 시인이 정치에 빠져들지 말아야 함을 신조로 받아들인 점, 시를 하나의 계시로 받아들이고 시인을 주술사로 그린 점 역시 예이츠와 유사한 점이다.

히니는 제임스 조이스에게서 많은 것을 전수받았다. 둘이 다 카톨릭 출신 문인들로 카톨릭의 감성을 가진다는 것,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난 것을 사실적으로 그린다는 점, 종교 및 공동체로부터 떠나 보편적 작가로서 세계화를 모색하는 점, 아일랜드 경험을 영어로 표현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던 점

등에서 그 영향력을 살펴볼 수 있다. 카톨릭으로서의 그들의 감수성은 죄의식을 갖는 면에서도 같다고 볼 수 있다. 『젊은 예술가의 초상』에서 스티븐이 공동체의 가치관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술가로서의 길을 간데 대한 죄의식은 히니의 『밭일 *Field Work*』 및 『순례의 섬 *Station Island*』에서도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 조이스의 『율리시즈 *Ulysses*』의 I, II, III 장에서 정체성 추구로서의 'omphalos'를 추구하는 일, 영국의 제국적 상업주의에 대한 저항, 상실된 언어의 회복에 대한 강한 염원⁶⁾은 히니의 시에서도 나타나는 소재이다. 그러나 히니와 조이스가 다른 것은 그가 조이스만큼 직접적으로 저항성을 표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히니와 조이스는 둘다 억압받는 카톨릭으로서 히니는 조이스에게서 예술의 정치·종교로부터의 자유 및 세계화 정신을 모방했다. 히니는 초기에 자신이 속한 동족의 정신에 충실하였으나 내분과 폭력이 극단으로 흐르자 자신의 동족이 요구하는 정치 대변인으로서의 위치를 거부하는데 이런 면은 조이스의 '불복종(non servium)' 정신의 일면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조이스는 유럽행을 택하나 히니는 자신의 것에 충실할 수 있는 아일랜드 공화국으로 넘어간다. 조이스는 자신이 영국에 의해 억압받는 것을 매우 부조리한 것으로 간주했고 따라서 유럽화를 지향하였다. 이런 점 때문에 히니는 조이스를 정치·문화면에서 가장 유능한 작가로 생각한다.⁷⁾

6. 『율리시즈』 I 장에서 주인공 스티븐은 가족 종교·언어 등의 일체의 구속감으로부터 해방을 시도하여 집을 나와 마텔로 탑에 거주하고 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의 죽음앞에서 강요된 신앙고백을 물리침으로써 비롯된 양심의 가책(*agenbeit of wit*)으로 고통받고 있다. 그리고 스티븐의 뿌리정신은 "To ourselves... new omphalos"를 말하는데서도 나타난다. I 장에서 조이스의 영국인 하인즈에 대한 강한 적개심은 물질 때문에 자신의 동포가 고통받는 데 대해 영국에 가하는 일종의 저항의식의 표현이다. 이밖에 율리시즈 III장 "Proteus"장은 조이스의 언어에 대한 강한 집착이 나타나는 장이다. 이 장에는 한 어휘가 여러나라 언어로 표현되기도 하고 새로운 말을 만들어 가고 있다. 그의 이런 면은 해변가에서 놀고 있는 개를 'hare, buck, fawn, wolf, calf, pard, panther' 등으로 묘사하는 데서도 잘 나타난다.

7. Frank Kinahan, "Artist on Art : An Interview with Seamus Heaney," *Critical*

히니는 조이스처럼 영어가 자신의 언어와 다른 데 대한 민감한 반응과 그 결핍을 극복하려는 염원이 강하다. 조이스가 『젊은 예술가의 초상』에서 다룬 ‘Holy Tundish’⁸⁾의 문제는 조이스의 것만이 아니고 히니의 것이기도 하다. 히니는 조이스로부터 영어로 순수한 아일랜드적 경험을 다룰 수 있다는 확신감을 얻었다. 즉 『순례의 섬』 2부 12편에서 히니는 자신의 생일과 조이스의 일기날짜를 일치시키면서 스티븐의 ‘Tundish’에서 느낀 조이스적 에피파니를 자신의 향연으로 받아들인다.

... that one entry
has been a sort of password in my ears.
the collect of a new epiphany.
the Feast of the Holy Tundish. (S.I. II. 12. p.93.)⁹⁾

히니는 영어를 제국주의가 자신들에게 심은 굴욕적인 것으로 인식하지 않고 오히려 토착 무기로 이용하게 되었다.¹⁰⁾ 히니의 이같은 언어에 대한 관점은 매우 낙관적이고 융화적 측면을 갖고 있다. 즉 자신의 언어를 모음으로 하고 영국적 경험을 자음으로 표현하는 새로운 말을 만듦으로써 그의 언어 연구는 귀결된다.¹¹⁾ 또 하나 히니가 조이스에게서 배운 것은 자신의

Inquiry Vol. 8 (1981-82), p. 407.

“Joyce seems to me to have been the most enabling of writers in a political, cultural way because he didn’t take England under his notice.”

8. James Joyce,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New York : Viking Press, 1974), p. 262.

“The language in which we are speaking is his before it is mine. ... His language will always be for me an acquired speech. I have not made or accepted its words. My voice holds them at bay. My soul frets in the shadow of his language.”

요컨대 스티븐은 영국태생의 학장이 ‘Tundish’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영국인보다 영어를 더 잘 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된다.

9. Seamus Heaney, *Station Island* (London : Faber and Faber, 1984), p.93.

10. Seamus Heaney, “The Interesting Case of John Alphonsus Mulrennan,” p. 35.

11. Seamus Heaney, “The Trade of an Irish Poet,” *The Guardian*, 25 May 1972, p. 17.

사회를 사실적으로 파헤친 점이다. 조이스는 객관화시킬 수 있는 글을 썼는데 이와 같은 객관성은 자신이 속한 사회의 약점을 적나라하게 노출시킨다. 조이스의 이같은 객관성의 전략 밑에는 아일랜드 현대 문인들이 갖는향토에 대한 애착과 국제화라는 이중적 시점이 들어있고 보편성을 통해 국제무대에서 지위를 확보하려는 정책이 들어있다.

마지막으로 히니에게 영향을 준 사람이 패트릭 카버나흐다. 그는 자신의 고향을 '시간이 시작되는 시점'으로 묘사하는데 이것은 히니가 자신의 고향 모스본(Mossbawn)을 'the first place'로 묘사하는 것과 같다. 히니에게 끼친 카버나흐의 영향은 대지에 대한 애착, 자연과의 교감에서 나오는 의인화, 시 쓰는 일과 쟁기질을 동일시하는 장인정신, 아일랜드 농업사회의 배고픔과 어려운 상황을 반영하는 점 등이다. 카버나흐의 시를 읽고 비로소 쓸 소재를 찾을 수 있었다는 히니의 언급은 자신들의 것을 시의 소재로 삼을 수 있다는 희망을 카버나흐로부터 고취 받았음을 의미한다. 무엇보다 히니는 카버나흐로부터 대지에 대한 애착을 전수받았다.

「아일랜드의 두 가지 문화의 전통」이란 강의에서 히니는 카버나흐 시의 전통을 카톨릭 켈트문화로 분류했다. 즉 조상을 존경하고 자신이 태어난 곳과 자신의 언어 문화를 부활시키려는 전통이다. 카버나흐는 초기 문예부흥운동의 주역들이 아일랜드 농촌과 자신들의 토속적 문화에 대해 너무나도 알팍한 생각밖에 없음을 공격하면서 그들을 '허풍선이(buckleppin)'¹²⁾란 말로 경멸했다.

아일랜드의 대 기근¹³⁾ 때 감자파는 농부의 모습을 그린 카버나흐의 시 「대 기근 The Great Hunger」과 히니의 시 「감자파는 곳 At a Potato Digging」은 카버나흐가 히니에게 끼친 영향력이 잘 나타난 시다.

"I think of the personal and Irish pieties as vowels and the literary awarenesses nourished on English as consonants. My hope is that the poems will be vocables adequate to my whole experience."

12. 이 말의 원래의 의미는 'giant and non-logical step'이다.

13. 대 기근에 대해 J. C. Beckett, *A Short History of Ireland*, p. 145.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The influence of the famine was so tremendous that it touched every department of life. Its most spectacular result was a rapid and permanent decline in the population."

C. 유럽 및 미국 문학 전통과 히니의 시

히니 시에 나타난 또다른 색깔은 유럽 및 미국 전통을 수용한 점이다. 특히 유럽공동체의 문화규약처럼 자국의 지역 색깔을 인정하면서 보다 넓은 유럽적 정체성을 추구하려는 인식이 깔려 있다. 히니 시는 영국 문화가 교집된 문화적 다원성을 인정하지만 처음부터 그의 사고는 영국적 합리성보다는 시정신으로의 부활이라는 점에 있어 보다 그리스적이다. 켈트적 감성은 그리스적 감성과 비슷하며 히니 시 초기에는 지역적 색채를 부각시킨 면에 있어 탈식민적 동기에 이바지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의 시에는 영국 전통 역시 무시할 수 없고 동구 러시아 작가까지 다양한 전통이 용해되어 나타난다.

자연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 프로스트(R. Frost), 사회 병리적 측면을 분석하려한 점은 오든(W.H. Auden), 자연 속에서 위안을 얻으려한 점은 워즈워드(W. Wordsworth), 감각적 언어 구사에 있어서는 테드 휴즈(Ted Hughes), 시 창작의 태도에 있어 홉킨즈(Hopkins), 정치적 압력에 굴하지 않고 예술의 자유를 추구하는 점은 러시아 작가 오십 멘델스탐(Osip Mendelstam), 이 밖에도 지적 고백체 글쓰기라는 면에 있어 라킨(Philip Larkin)의 영향을 찾아볼 수 있다.

유럽 전통에로의 접맥이란 측면은 무엇보다 『밭일 *Field Work*』 이후의 작품에는 단테와 버질에 대한 인용이 여러 곳에서 행해지는 것으로 증명된다. 『밭일』의 애가 중 「작은 호숫가 *The Strand at Lough Beg*」에 단테의 문구가 인용된 것이라든지 이 시의 마지막에 살해당한 사촌의 몸을 이끼로 씻어주는 것은 버질이 단테의 얼굴을 닦아주는 장면을 모방한 것이다. 「구월의 노래 *September Song*」의 첫 행의 'In the middle of the way'는 신곡 'Nel mezzo del cammin di nostra Vita'와 같고 단테의 지옥 칸토 32, 33의 번역이 히니의 「우골리노 *Ugolino*」라는 작품이다. 『순례의 섬』 2부에서 히니에게 나타나는 유령들은 단테의 「신곡」의 구도를 모방한 것이다. 그리고 『환영을 찾아서』의 마지막 시 「건너지 *The Crossing*」 역시 단테의 「지옥 칸토 3」를 번역한 시인 것이다.

히니는 영국 교육수혜자로 영국 문학 전통에 영향을 받았지만 그가 의식적으로 추구한 것은 결코 영국 전통은 아니다. 오히려 과거의 아일랜드 전통 그리고 서로 대립되는 것이 조화된 좀더 추상적인 새로운 전통이다.

후기 시에는 글쓰기 자체와 언어에 대한 의식에서 포스트 모던 감각이 엿보인다. 물론 이같은 감각은 초기 시부터 글쓰기에 대한 시인의 의식에서도 반영되지만 특히 『산사나무 등불 *The Haw Lantern*』 이후는 더욱 더 글쓰기 자체에 몰두한 시들이다. 「알파벳 *Alphabets*」이란 작품은 글배운 이후로의 자신의 시쓰기 경험을 소개한 시로서 구형의 기하학의 이미지로 자신의 글쓰기를 묘사했다. 그런데 원의 이미지는 모든 것을 수용하면서 아울러 해체시키는 점에서 포스트 모던적 기호인 것이다. 또한 「영광의 기술」에서 소크라테스가 일생을 두고 머리속에 쓴 것은 철학이 아니고 시였음을 밝히면서 쓰기라는 행위를 강조한 것, 의미의 전달보다는 언어가 갖는 재현 불능의 특성을 인식하면서 최대의 언어 변신을 꿈꾼 점, 소재의 고갈과 자신의 글쓰기에 대한 불신을 표현한 점 등은 포스트 모던 색채와 무관치 않다. 이밖에도 「돌갈개 *The Stone Grinder*」에 나타난 자신의 글쓰기가 잔잔한 파문처럼 커져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고백하는 것이라든지 최근 시집 『환영을 찾아서』에 나타난 사물을 바라보고 있는 작가를 독자에게 보이는 극단적 객관화의 경향 역시 포스트 모던적 글쓰기 태도로 볼 수 있다.

D. 초월적이고 윤리적인 새로운 전통과 히니의 시

아일랜드 문학사의 특색을 에이츠식의 켈트문화로의 회복과 'here', 'now'의 삶을 중시하는 조이스적 사실주의 전통, 카바나호적인 향토색 추구, 몬타그적 국제성 추구, 얼스터 시인들의 개인적 성향으로만 표현한다면 커다란 것을 놓치게 된다.

아일랜드 문학사의 또 다른 특색은 아일랜드인들의 풍부한 시적 감수성, 안보이는 세계에 대한 강한 믿음, 그리고 조화를 추구하는 새로운 전통 창조에 대한 염원에서 발견될 수 있다.

아일랜드 문학사를 들여다보면 신교를 믿는 앵글로 아이리쉬 특권계층과

민족 대다수의 문화를 반영하는 구교의 갈등이 계속해서 나타난다. 내부 세력의 분열과 갈등은 영원히 풀리지 않는 과제로써 일부 작가들로 하여금 국제화나 개인적 성향으로 기울어지게 만들었다. 히니 역시 처음에는 켈트, 게일의 민족 전통의 색채가 짙다가 풀 수 없는 분규와 폭력 속에서 화해와 융화로서의 수용적이고 포괄적인 민족 정체성을 추구한다. 특히 가장 최근 시집인 『환영을 찾아서』와 『영혼의 측정』은 얼스터 폭력 사태 속에서 생존을 위협받는 모습과 거리가 있고, 정치, 종교의 짐에 눌려 있지도 않고 자유로운 개별자로서 민족 전체를 영혼의 초월 세계로 초대하려 한다.

우선 작가는 자신을 객관화시키고 사물을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자유인으로 초월을 시도한다. 이런 태도를 촉진시킨 가장 큰 동기는 자연과 가까워 윤리적 삶을 살다 저승으로 간 친부에 대한 애착이다. 어린시절 아버지와의 추억, 책가방, 밤을 담은 바구니 등의 일상적 소재를 객관적으로 스케치함에 머물지 않고 죽은父에 대한 그리움이 영혼 세계로의 탈출을 돕고 있다. 또한 이곳에는 히니의 마음의 고향 아나호리쉬에서 어둠과 폭력이 지워진 순수세계가 그려지고 있다.

최근 시집의 특색은 구상적 소재에서 추상의 세계로의 전환이 시도된다는 것인데 이같은 언어의 변용은 언어 자체에 변신의 자유를 허락하며 초월이라는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달성시키는데 적절한 수단이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이같은 초월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모든 개인들이 가야할 개인적 세계인 동시에 아일랜드인들의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중심, 즉 ‘uisneach’를 추구하는 민족적 행위인 것이다. ‘uisneach’란 비밀스런 중심으로서 예언가, 시인, 주술가만이 볼 수 있고 모든 갈등이 풀리는 곳이다. 민족의 흥미한 역사가 낳은 갈등이 풀리는 이곳을 가기 위해 히니는 영으로 비약할 수 있는 초월적 태도와 자신까지도 비판할 수 있는 초객관적 태도를 제시한 것이다.

『환영을 찾아서』의 첫 시 「귀로 The Journey Back」는 죽은 라킨을 회상하는 시로서 단테의 싯귀를 떠올리면서 시작한다. 모든 사라져가는 것의 이미지로서 황갈색의 노을이 묘사되었다. 이때 노을은 어둠이 갖는 차가움을

예시하기보다 위안을 주는 것으로 묘사된다. 죽음으로 가는 일상속에서 시련을 견딜 수 있음은 러시 아워 시간에 시달리는 폐쇄제한 월급장이 일지라도 현명한 왕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라는 영적인 위안 때문이다. 죽음은 반복되는 일상일 뿐, 결국 시로써 작가 자신, 선배작가인 라킨, 단테를 포함한 모든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연민과 사랑을 질게 드러낸다.

Larkin's shade surprised me. He quoted Dante:

*Daylight was going and the umber air
Soothing every creature on the earth,
Freeing them from their labours everywhere.*

*I alone was girding myself to face
The ordeal of my journey and my duty
And not a thing had changed, as rush-hour buses*

*Bore the drained and laden through the city.
I might have been a wise king setting out
Under the Christmas lights - except that*

*It felt more like the forewarned journey back
Into the heartland of the ordinary.
Still my old self. Ready to knock one back.*

A nine-to-five man who had seen peotry.

최근 시집에는 아버지의 죽음 때문에 촉진된 질문 ‘영혼은 어디에 사는가?’에 사로잡히면서 사물이 시간의 흐름속에서 물흐르듯 자유롭게 변형되어 흘러감을 느낄 수 있다. 「세 개의 그림 Three Drawings」에 나타난 구체적 물건인 축구공이 자유라는 순수이미지로 변형되고, 낯시대 릴의 진동에

낫시꾼은 일체감을 느낀다. 낫시대 던지기와 모을 때의 소리와 방향감각 그리고 아버지의 민첩하고 능수능란한 움직임에 대한 회상은 「땅파기」에서 받던 자극처럼 자신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면서 추상의 세계로의 사색을 촉진시킨다. 이때 한쪽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지켜보라, 엄해져라’, ‘넌 2펜스의 가치도 없는 인간이다’ 또다른 소리는 ‘포기하고 벗어나라’ ‘너는 내가 그 강가에서 느끼는 모든 것이다’로서 그의 신념은 흐르는 물처럼 유동하다 초월의 경지에 이른다.

『산사나무 등불』에는 원숙함을 상징하는 원의 이미지가 등장한다면 『환영을 찾아서』에선 선긋기의 이미지가 반복되는데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세대가 이어짐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시집에서 사물과 인간의 교감이 강하게 표현된 작품으로 「베레타모자」를 들 수 있다. 베레타모자는 사제로부터 받은 것인데 셋으로 갈린 모습에서 골(Gaul) 지방이 연상되기도 하고 사제의 외침과 성당의 고풍스런 분위기, 연옥이 종착역인 배 등으로 자유로운 상상의 변형이 이루어졌다. 이처럼 구체적 사물에 대한 관찰은 사물을 하나의 고착된 대상으로 보지 않고 자유로운 변신이 가능한 대상체로 인식해 마침내 영혼의 상승까지로 이어진다.

III. 결 론

히니 초기의 시 『자연주의자의 죽음』에서 『복쪽』까지의 시에는 문예부흥 이후로 추구된 끊겨진 전통을 켈트적 색채에서 찾으려는 에이츠적 신화 만들기의 전통, 카톨릭 게일 문화를 사실적으로 그려내려는 카바나흐와 조이스적 향토에 대한 애착의 전통이 잘 드러난다.

히니는 오랜 식민문화 속에서 영국의 품삯노동자, 외국인을 즐겁게 하는 노예로 전락된 것이라든지, 금간 거울 같은 역사의 슬픔, 영어로 글을 씀으로써 자신의 문화를 파괴하는 파괴자로서의 문인의 역할같은 결핍감을 에이츠, 조이스, 카바나흐 등이 제시한 문학전통을 통해 극복해 낸다.

안테우스 헤라클레스 등의 민족의 재생신화, 일련의 늪을 그린 국토신화는 에이츠적 낭만성과 허구성이 나타나기보다는 조이스, 카바나호적인 사실주의 경향으로 자신들의 비참함과 패배(fall)라는 비극적 상황을 희극적으로 승화시켰다. 후기 시에는 몬타그적 국제지향적인 면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은 풀 수 있는 새로운 전통을 창조해 내려는 의식이 드러난다. 특히 개인주의적 경향을 지향한 『순례의 섬』 이후의 작품 속에는 개인적 경향과 더불어 통합 아일랜드(whole Ireland)와 유럽공동체 국가로서 미국에서 모델을 찾으려는 국제 지향적 감각이 포스트 모던적 글쓰기로 표출된다.

최근 시집 『환영을 찾아서』와 『영혼의 측정』에서의 윤리적, 초월적 경향은 개인세계를 추구하면서 아울러 아일랜드 민족시인으로의 면모를 잃지 않고 있음을 드러낸다. 따라서 히니에 대한 결론적 평가는 다음과 같다. 즉 개별성만을 추구한 현대시인과 달리 개별성에다 민족의 전통을 조화시킨 작가로서 20세기 또 과거 영문학에서 보기도문 충·효사상이 투철한 아일랜드 풍토만이 생산할 수 있는 전통을 사랑한 민족시인이라는 것이다.

〈청주대학교〉

참 고 문 헌

A. the Primary Source

- Heaney, Seamus. *Death of a Naturalist*. London : Faber and Faber. 1966.
 _____. *Door into the Dark*. London : Faber and Faber. 1969.
 _____. *Wintering Out*. London : Faber and Faber. 1972.
 _____. *North*. London : Faber and Faber. 1975.
 _____. *Field Work*. London : Faber and Faber. 1979.
 _____. *Preoccupations*. London : Faber and Faber. 1980.
 _____. *Station Island*. London : Faber and Faber. 1984

_____. *The Haw Lantern*. London : Faber and Faber. 1987

_____. *Seeing Things*. London : Faber and Faber. 1991

B. the Secondary Source

Beckett, J. C.. *A Short History of Ireland*. London : Hutchinson. 1979.

Dillon and Chadwick. *The Celtic Realms*. London : Faber and Faber. 1973.

Evans, Estyn, E. *Irish Heritage*. Dundalk : Dundalgan Press. 1942.

Garratt, F. R. *Modern Irish Poetry*. Los Angeles : California Univ. Press. 1986.

Glob, Peter Vilhelm. *The Bog People*. London : Faber and Faber. 1969.

Heaney, Seamus. "The Interesting Case of John Alphonsus Mulrennan,"
Planet 41 (January 1978) : 34-40.

_____. "The Trade of an Irish Poet," *The Guardian*, 25 (May
1972) : 17.

_____. "On Irish Expressionist Painting : A Reply," *The Irish
Review* 3, (1988) : 39.

Johnston, Dillon. *Irish Poetry After Joyce*. Mountrath : University of Nortre
Dame. 1985.

Joyce, James.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New York : Viking
Press. 1964.

Kavanagh, Patrick. *Collected Poems*. London : Martin Brian and O'keeffe. 1972.

Kinahan, Frank. "Artist on Art : An Interview with Seamus Heaney." *Critical
Inquiry* 8, 3(1982) : 406-14.

Lucy, Séan. *The Irish Poets in English*. Cork : The Mercier Press. 1972.

Randall, James. "An Interview with Seamus Heaney." *Ploughshare* 5, 3(1979):
7-22.